김경문 감독, 코치진·대표팀 선발은?

김경문(가운데) 국가대표 감독이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열린 선임 기자회견에서 정운찬(왼쪽) KBO 총재, 김시진 기술위원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이끈 뒤 11년만
11월 프리미어12·2020년 도쿄올림픽 치뤄야
이승엽·박찬호 등 코치진 합류엔 '부정적'

새롭게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김경문(61) 감독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이끈 뒤 11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돌아온 김경문 감독은 올해 11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치러야한다.

2019 프리미어 12는 도쿄올림픽 예선을 겸한다. 도쿄올림픽 출전권 2장이 걸려있다. 일본이 개최국 자격으로 도쿄올림픽 본선에 자동 참가하는 가운데 프리미어 12 대회 결과에 따라 아시아·오세아니아 1장, 아메리카 1장의 출전권이 주어진다.

일단 프리미어 12를 통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것이 '김경문호'의 첫째 목표다. 다음은 도쿄올림픽이다.

김 감독도 "일단 프리미어 12에 모든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도쿄올림픽 출전권 한 장이 걸려있으니 좋은 결과로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어 12를 위해서는 코치진 구성이 우선이다. 김 감독은 "가능한 빨리 코치진을 인선하려고 한다. 빠르면 2월 중순 안으로 인선을 마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 야구의 '전설' 이승엽, 박찬호의 대표팀 코치진 합류 여부도 관심사다. 김 감독의 판단은 다소 부정적이다.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야구는 팀워크 운동이다. 코치가 화려하면 선수보다 코치에 집중된다. 이승엽은 아직 아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 코치진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찬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김 감독의 말대로라면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코치진 구성은 김 감독이 전권을 쥘 전망이다.

김시진 KBO 기술위원장은 "기술위는 김경문 감독님 만의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한다. 우리의 의견도 개진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님 의중"이라고 전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 논란과 관련해 선수 선발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다. 선동열 전 감독이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은 것도 이 비판 때문이다.

김 감독으로서는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대표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 탓에 대표팀으로 선발되는 선수들이 안게 될 부담감도 완화해야 한다.

김 감독은 "어느 감독이 선발해도 조금씩 문제가 있었다. 나도 선발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선발하도록 하겠다"며 "선발 과정에서 기술위원장과 기술위원, 코치진 모두 이야기를 나눠 납득가는 선수들을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전에 국제대회에서 일본 경기를 보면 일본 선수들이 부담감을 많이 가졌다. 하지만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들이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안타까운 마음도 드러냈다.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도 김 감독의 의견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시진 위원장은 "모든 부분은 김경문 감독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기술위는 데이터, 선수 개개인의 신상과 부상에 대해 파악하고, 김경문 감독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조선이공대학교가 29일 조순계 총장과 광주시 체육회 오순근 사무처장, 광주레슬링협회 강경환 명예회장, 대한레슬링협회 김형구 전담국제심판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자레슬링부 창단식을 갖고 있다.

조선이공대, 여자 레슬링부 창단

창단식 갖고 본격 훈련 돌입

조선이공대학교가 여자레슬링부를 창단했다.

조선이공대는 29일 오전 조순계 총장과 광주시 체육회 오순근 사무처장, 광주레슬링협회 강경환 명예회장, 대한레슬링협회 김형구 전담국제심판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자레슬링부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조선이공대는 올해 일부 신입생이 레슬링부 입단을 희망함에 따라 시체육회와 광주레슬링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여자레슬링부를 공식 창단했다.

이들은 대학 레슬링부가 없어 조선대와 남구청을 오가며 훈련을 받는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날 창단을 계기로 올해부터는 교내에서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선수 육성의 틀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게 됐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한 정천모씨가 지도 감독하고, 신하진(19학번·스포츠재활과), 민예지(19학번·스포츠재활과), 이다경(19학번·정보통신과), 한솔(18학번·스포츠재활과), 박세은(18학번·스포츠재활과), 김다현(18학번·스포츠재활과) 등 선수 6명으로 구성됐다.

겨울 동계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2월에 열리는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 첫 출전할 계획이다.

조순계 총장은 "우리 대학 여자레슬링부가 국내 레슬링계의 신흥 강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창단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이 더욱 단합해 대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또 지역의 명예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재활과 김승영 교수는 "체육회와 레슬링협회 도움으로 팀을 창단하게 됐다"며 "훈련 수준도 질적으로 많이 향상될 것이며, 학교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이공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레슬링선수 8명이 입학, 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 개인전 1위·3위, 단체전 2위 성적을 낸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레슬링 경기에서는 조선이공대 스포츠재활과 박은영 학생이 금메달을, 오정빈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메달 레이스도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정기총회

22개 시·군 대의원 및 이사 등 50여 명 2019년도 예산안 결의

장귀남(전라남도도게이트볼협회)회장이 2019년 총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회장 장귀남)가 지난 28일 영암전천후게이트볼장 회의실에서 '2019년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장 회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협회 사무실에서 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처음 갖는 총회로 감회가 새롭다."며 "새 희망을 품고 전남 게이트볼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다져가자."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대의원과 이사 및 전문위원까지 50여 명이 참석해 행정감사와 회계감사 보고를 통해 2018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등 2019년도 예산안을 결의 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2018년도 업적우수 시군협회 시상식에서는 무안군, 담양군, 구례군, 영암군, 신안군, 장흥군, 목포시가 영광의 수상을 차지했으며 우수업적 사무장으로는 무안군 사무장이 수상했다.

김일호 사무국장은 "올해 예산 절감을 위해 임원대회와 언로인대회를 일원화해 1회로 줄이고 2회를 진행했던 여성대회 역시 1회로 줄인다."고 발표해 결의했다.

또한 2019년부터 전남도 내 심판원(800여 명) 연수를 편익을 위해 6개 지역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등 3급 심판원 응시 자격도 등록 접수 후 6개월을 1년으로 기간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2019년부터 달라진 심판규정은 연수를 통해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KBO 시범경기 3월 12일 시작…팀당 8경기씩

올해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3월 12일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시범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열린다. 각 팀별로 4개 팀과 2차전씩 8경기, 총 40경기가 치러진다.

시범경기 개막전은 KT 위즈-삼성 라이온즈(대구), SK 와이번스-KIA 타이거즈(광주), LG 트윈스-키움 히어로즈(고척), 두산 베어스-한화 이글스(대전), 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상동) 등 5개 구장으로 확정됐다.

KBO는 "이동거리와 그라운드 공사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구장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고 전했다.

경기 개시 시간은 오후 1시다.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고 취소된 경기는 재편성되지 않는다.

올해 KBO리그 정규시즌은 역대 가장 이른 3월 23일 개막한다.

뉴시스